민선7기 공약 이행률 84%

전주시, 공약사업 76건 추진상황 점검 35개 사업 완료 · 40개 사업 정상 추진 중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 총 76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약 이행률이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공약평가단 위원 20명과 함께 공약평가단 회의를 열고 지난 9월까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35개 사업이 완료, 40개 사업이 정상 추진, 1개 사업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완료사업은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단계별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실현 △야호아이숲 놀이터 확대 △덕진공원 명품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치원, 초·중·고 무상교육 국가책임제 적극 추진 등이다.

정상 추진 사업에는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생태동물원 조성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 △전주시 상생발전 기업 선정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이 민선7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완료된 공약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추진 중인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이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부진한 사업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관광안내소 역할 '시간여행카페' 전주 곳곳서 운영

올 연말까지 카페 10곳서 관광 정보 제공 · 이벤트 등 진행

전주 곳곳에 위치한 카페 10곳이 관광객에게 전주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을 돕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한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경원동 삼양다방, 전동 행원 등 10곳의 카페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간여행 101 홍보거점'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소통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여행카페'를 지역 곳곳에 운영해 기존 관광안내소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시간여행카페는 △왕의지밀 가비고달(대성동) △티엔 토르테(동서학동) △행원(전동) △상상(중앙동) △커피 발전소(덕진동) △오뉴월(교동) △명천재(대성동) △삼양다방(경원동) △감영75(전동) △마시랑게(전동) 등이다. 상반기에 선정됐던 기존 7개소에 지난달 3개소가 추가돼 총 10곳이 운영된다.

시간여행카페에는 관광 안내문과 기념품 등이 비치돼 전주 관광은 물론 군산, 고창, 부안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과의 연계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카페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미션투어와 SNS 댓글달기 이벤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지역 카페에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득을 증대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시간여행 101 홍보거점' 사업이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전주에 걸맞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 전북대 · 전주대, 관광마케팅 활성화 '맞손'

활성화 연구 · 아이디어 제안 · 공유 · 관광정보 교류 등 협력 협약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관광거점도시 전주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과장 최용준),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학과장 류인평)는 1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전주대는 △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 연구 △PR 아이디어 제안 및 공유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관광정보 교류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는 17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에서 '글로벌 관광거점도시 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 및 미디어 등 전문 영역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북대학교 PR론을 수강한 20명의 대학생과 전주시 글로벌마케팅 방안 간담회를 열고 첫마중길 사계절 꽃밭, 막걸리골목 팝업스토어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대학이 전주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돼 주길 희망한다"며 "지역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광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추진 총력

대책상황실 가동 · 블랙아이스 사고 대비 제설제 사전 살포 · 요소수 확보 등 만전

전주시는 겨울철 강설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전주시가 교량·터널 등 상습결빙구간의 블랙아이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설제 사전 살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하차도 열선 설치와 요소수 확보 등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17일 제설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겨울철 강설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층 강화된 도로 제설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교량, 터널 등에서 블랙아이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제의 사전 살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최근 발생된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비해 제설장비가 차질 없이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요소수 2000ℓ를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지난 15일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기상 상황 확인과 비상 연락체계별 상황 보고, 피해 발생 시 즉시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기 위해 기상예보에 따른 시간별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눈 예보 6시간 전 제설작업 여부에 대한 상황 판단에 나서, 4시간 전에는 교량, 터널 등 취약구간 사전 살포, 3시간 전에 전 노선에 대한 사전살포를 진행하게 된다. 7㎝ 이상 폭설 시에는 전 직원이 동원돼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도로 제설노선의 경우 신규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51㎞가 증가된 587㎞ 구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제설 차량 5대를 추가로 임차했으며 제설 취약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예수병원 등 15개소에 제설용 CCTV를 설치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에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예수병원 앞 등 오르막길 5곳에는 10개의 임시 염수살수장치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컸던 월드컵 지하차도 구간에는 열선을 신규 설치해 총 14군데에서 열선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의 200%에 해당하는 2000톤을 준비했다.

또 요소수 대란 사태에 대비해 대형화물차 등 제설장비의 작업 투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전라북도와 함께 익산의 요소수 생산업체를 방문, 제설기간 중 필요한 요소수 2000ℓ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시는 폭설에 따른 주요 교차로의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혼잡이 예상되는 총 19곳에 모범운전자협회 인력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봉 국장은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자동차 체인 등 월동 장비를 준비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 · 부모 대상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재발 가능성을 줄여줄 특별교육이 운영됐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달 21일부터 총 32회에 걸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부모 4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가해자 특별교육프로그램: 희망고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건강한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방식 등 가족적 요인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모와 자녀가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집단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힘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며 "부모로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학교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사업의 취지"라며 "학교폭력 재발장지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